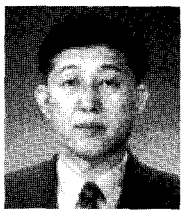


기고문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미완성 발명

- 기(氣), 수맥, 피라미드 에너지, 사상체질 등의 이론과 관련된 발명들 -

백승준(백승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



필자가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1990년대 후반 한동안 기(氣)치료, 유

해 수맥과 차단, 피라미드 에너지의 효과, 사상체질 등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았던 적이 있었고, 상기 기술들과 관련하여 많은 특허들이 출원되었다. 이와같은 발명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미완성 발명으로 그 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氣)치료 관련 제품으로 인체 내의 기(氣)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로운 기(氣)를 차단시키기 위한 음양과 오행을 상징하는 평면 또는 입체도형이나 기(氣) 에너지를 발산하는 히란야 문양과 같은 특정문양 등에 관한 발명.

둘째, 수맥차단 관련 제품으로 알루미늄 박판 또는 동 박판과 합성수지 박판 등으로 적층한 수맥 차단시트나 수맥방지기구 또는 특정문양 등에 관한 발명.

셋째, 면도날 재생 및 내성효과, 질병 치료 효과, 집중력 향상 효과 또는 식품의 신선도 향상 효과 등을 부각시키는 피라미드 형상의 구조체에 관한 발명.

넷째, 사람의 체질을 사상 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진단 기기나 사상 체질에 따른 음식을 분별하는 기기 등에 관한 발명.

위의 네 가지 타입의 발명들을 살펴보면, 상기 발명들은 인체 내

에서 발산되는 기(氣), 또는 땅속의 지하 수맥에서 발생하는 수맥과, 혹은 피라미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이론 근거 없이 적용한 발명들이고, 사상체질을 분류하는 발명은 개신유학(改新儒學)의 일종인 사상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상의학의 이론을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과학적 이론 근거가 없이 기계적으로 단순 적용시키려는 것에 불과한 발명이다.

또한 위의 발명들이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체문양, 수맥 차단시트, 피라미드 형상 구조체, 사상체질 진단기 등과 같은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상기 수단들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 즉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실험성적증명서나 또는 실험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발명들에 속하는 것들이다.

특허법에서는 위의 유형들과 같은 발명들은 명세서에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의 달성 및 효과가 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완성된 발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 발명이라 하며, 이러한 미완성 발명들은 발명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이와같은 발명들은 작용 효과에 따른 기술적 특이성을 제외한다면, 제품의 구조, 형상, 모양에 따른 기술적 특징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으로 보호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청, '특허고객 콜센터' 특허상담원 상담 실시

특허청은 그동안 제기된 상담원에 대한 국제출원분야(PCT, 마드리드 등)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상담내용의 불만족을 해소하고자, 상담원 중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3개월간 이론 및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제출원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상담원을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출원분야의 전화상담에서도 윈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특허고객 콜센터'에서는 특허상담원의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종래와 같이 전화(1544-8080)로 문의하면 특허상담원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알아두시다! 나를 지켜주는 호신용품

최근 연쇄살인범 체포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신용품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 가정용 금고 등 방범용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고, 노인이나 여성 등 자기 방어력이 약한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휴대용 호신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휴대용 경보기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 가정 방범용품

가정 방범용품 중에는 지문인식, 비밀번호, 반도체키 등 다양한 방식을 채용한 디지털 도어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제품들은 외부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도어록을 떼어내려고 하면 자동으로 침입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비밀번호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한 번호키 방식의 디지털 도어록은 10만~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등록된 지문을 가진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도록 설계된 최첨단 지문인식 도어록은 30만~70만원대로 고가이지만 보다 완벽한 보안을 제공한다.

도어록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뽕뽕이 방범벨' 등 방범창문 경보기가 있다. 소리통 본체와 자석 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본체와 막대가 1cm 이상 떨어지면 90데

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린다. 6개 한세트 1만원대. 적외선센서 무선 경보벨은 물체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려준다.

빈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제품도 있다. 타이머 콘센트(2만원대)는 15분 단위로 전등을 자동으로 켜고 끄주는 제품으로, 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사람이 집에 있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해준다. 파수꾼 올밤이(1만원대)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는 제품이다.

◆ 개인 호신용품

호신용 스프레이는 치한에게 뿌리면 눈과 피부가 심하게 따끔거리며 콧물에 심한 기침까지 나는 등 가스충 대응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1만~3만원대에 살 수 있다. 편을 뽑으면 105dB/m의 무서운 소리로 울리는 휴대용 경보기도 1만원 미만인 대부분이다.

강력한 사이렌음과 함께 전기충격이 발생하는 전기충격기(2만원대), 알루미늄 쌍절곤(1만원대) 등 아이디어 호신용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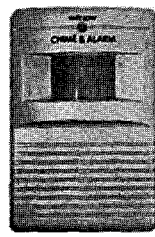
옥션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판매하고 있는 총포상 주인 이모씨(48·대구 매천동)는 '살인범 체포 후 며칠 사이에 판매량이 60% 가량 증가했으며 자녀 호신용으로 2~3개씩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며 '호신용 스프레이는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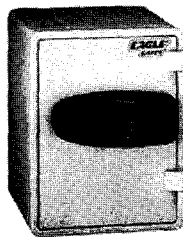
호신용 스프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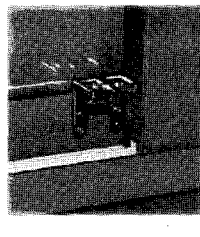
휴대용 경보기



센서 차임벨



가정용 금고



창문 빗장질이



디지털 도어록

APEC-WLN 200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



▲ 지난 8월 24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10차 APEC 여성지도자 네트워크회의' 준비위원회 발대식.

'제10차 APEC 여성지도자 네트워크회의(APEC-WLN)'가 2005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여 내년 8월 29일부터 4일간 대구에서 열리는 APEC-WLN 대회에는 21개 회원국에서 3백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내년 회의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해 지난 8월 24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준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이달 28일부터 4일간 칠레 라세레나에서 열리는 '제9차 APEC-WLN'에 여성기업인 및 각계 여성단체장들로 구성된 한국 참가단을 파견해 내년 회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번달에 개최되는 '제11차 세계여성기업가 회의'와 영국 글래스고에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51회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 등의 국제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APEC 지역 내 여성기업의 발전과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